



- 2018년도 제8대 고양시의회 -
기획행정위원회 & 건설교통위원회

국외 연수 보고서

발표자 : 기획행정위원장 김수환





1

| 연수개요

2

| 연수목적

3

| 일차별 내용

4

| 생크탕 엠 이블린 시청

| 헤센체육연맹

5

| 총평

연 수 개 요

- 연수기간 : 2018. 11. 6.(화) ~ 2018. 11. 14.(수) 7박9일
- 연수국가 : 영국, 프랑스, 독일
- 인 원 : 총20명(시의원 12명, 직원 8명)

기획행정위원회 : 5명 / 건설교통위원회 : 7명

연수목적

- 방문국의 선진사례를 비교·검토하고 체험을 통하여 건문을 넓힘으로써 의정활동의 역량 강화
- 방문국 주요도시의 도시개발, 체육, 박물관, 에너지사업, 의회의 역할 등 성공사례와 성장배경을 비교 시찰하여 지역 발전에 접목방안 모색
- 평화통일도시 고양시 앞날의 모습2을 생각하며 육로를 통한 국가와 국가의 왕래, 그리고 운송수단과 통관 절차 등의 운영 시스템을 체험



11월 6일(화)

□ 항공 이동

- 출발 : 12:55분 인천공항
- 도착 : **16:30**분 영국런던공항(같은날)



런던의 11월

일출 : 07시30분

일몰 : 16시25분

서울은 북위 37°

런던은 북위 54°

몽골은 북위 55°

□ 런던 대중교통 체험 탑승

○ 지하철 운영시설 견학 및 탑승(세인트 제임스 공원 역)

○ 2층버스 탑승

○ 시사점 또는 접목방안

- 런던 대중교통은 오랜 역사에 걸맞게 디자인이 심플하고 편리성이 좋았음.
- 지하철, 트램, 버스 등 대중교통 연계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음.
⇒ 우리 시에도 대중교통 환승에 따른 불편해소 노력 필요
- 2층 버스 도입 확대 : 일반버스의 1.5배의 승객탑승으로 교통체증 완화 효과



11월7일(수)

- 런던의 발견



장점과 부작용

옛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도시의 모습을 유지

부작용

- 주택부족으로 런던 시내 반지하도 100m²(30여 평)이 20억이 넘는다

오래되어 붕괴위험이 있거나 신축을 할 때에도 건물 외벽의 모습은 그대로 보존하고 공사를 한다.

11월7일(수)

- 런던의 발견



런던 시내 / 자동차

- 무질서를 찾아 볼 수 없었고, 불법주차 역시 없었다.
(이유) 세계에서 가장 많은 CCTV가 운영되고 있다고 함. 과태료가 많다고 함.
- 자동차 번호판이 2개?
(이유) 일방통행이 많아서 앞(흰색), 뒤(노란색) 번호판 색깔로 다르게 표시했다고 함.

11월 8일(목)

- 유로스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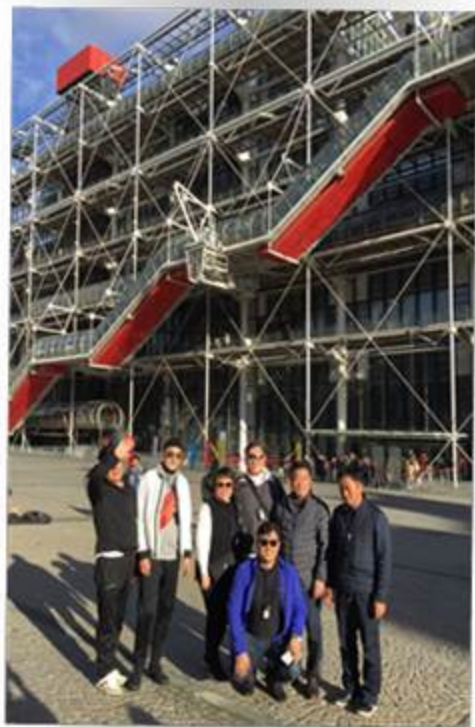


st. pancras역이 너무 인상적이었지만... 파리북역에 도착

섬나라인 영국을 떠나면서 내륙으로 들어가는 관문을 유로스타가 하고 있는데... 한국이 미래에 통일을 이루어 내륙으로 통하는 태평양 관문의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희망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그날까지 화이팅!

11월 8일(목)

- 도시재생 일환의 풍피두센터



풍피두센터

파리의 3대 미술관 중 하나...

배수관과 가스관, 통풍구 등이 밖으로 노출되도록 되었으며, 다양한 색깔의 건물 철골을 그대로 드러낸 외벽과 유리면으로 구성된 파격적인 외관...

11월 8일(목)

- 도시재생 오르세(ORSAY) 미술관



기차역에서 미술관으로 탈바꿈한 오르세미술관...

1900년의 만국박람회를 위해 호화롭게 건축된 역사는 20세기초 폐쇄되었다가...

1986년 1월에 건축물의 내장과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미술관으로 리모델링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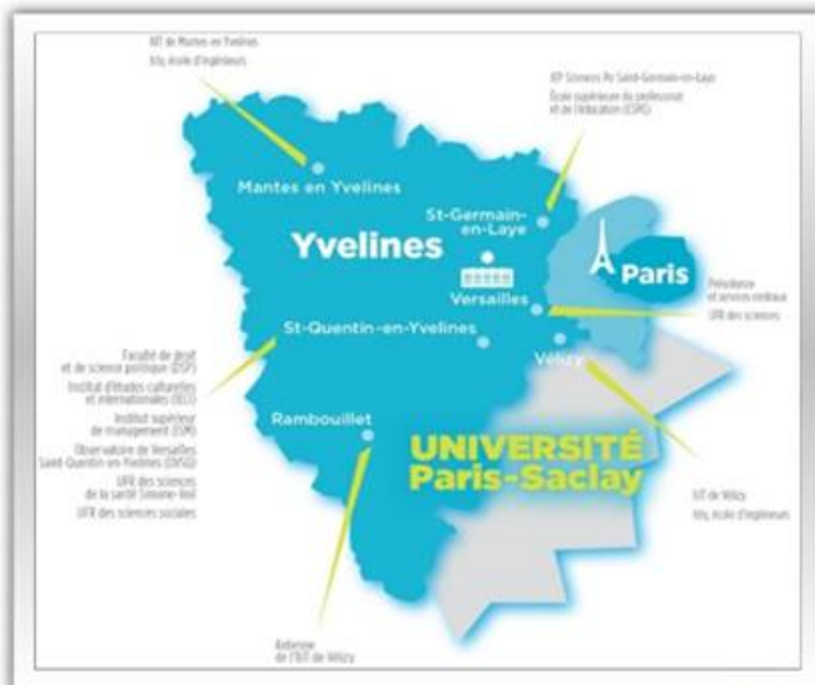
11월9일(금)

-생컹탱 엉 이블린 시청 방문



11월9일(금)

- 생크탱 앙 이블린 시청 방문



파리정부는 급속한 발전에 대처하기 위해 신도시 조성을 결정(1960년대)

- 2003년 신도시 준공 명령(파리의 남서쪽 20km지점에 위치)
- 2016년 기준 230,000명 거주
- 파리 서부의 두번째 경제 중심지(지역내 7,302개의 기업과 99,793개의 일자리...)

11월9일(금)

- 생크탱크 영 이블린 시청 방문



주요질문 내용

- 생크탱크 영 이블린시도 파리 아비타의 주택정책을 반영하고 있나?
- 지역별 온실가스 기후협약 이행은 하고 있나?
- 기업유치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?
- 복지정책은 어떤 것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나?
-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금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상 했나?
- 베드타운이 되는 것을 막는 방법은?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나?

11월9일(금)

- 생크탱크 영 이블린 시청 방문

- 파리 아비타(파리의 12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/관리하는 공공기관)의 주택 정책도 반영함과 동시에 각 지역의 주택계획도 함께 반영하고 있음.
- 교토의정서에 따라 기후협약을 준수하고 있으며, 자전거도로 확충과 전기자동차 및 대중교통 이용을 실천하고 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함.
- 기업 이전시 최초 5년간 50%, 5~10년간 점차 세금을 올리다가 10년 이후부터 정상 세금을 부과함. 대표적인 기업이 르노자동차다.



11월9일(금)

- 생크탱크 영 이블린 시청 방문

- 모든 지역이 이익배분이 골고루 되도록 노력했으며, 모두가 이익 배분에 합의가 되어야 이뤄지기 때문에 전 지역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했음.
-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세금감면 등으로 기업유치에 힘을 썼으며, 이에 따라 점점 기업들이 많아짐.
- 또한, 공공 및 행정서비스 확충과 상업시설 확충 그리고 먹거리 확충에 힘씀. 문화 및 스포츠, 레저를 우리 시에서 즐길 수 있도록 활성화에 노력했고, 병원 확충으로 이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함.

- 프랑스 파리를 1,000만 이상의 대도시로 발전시키고자 그랑파리 계획에 신도시 반영
⇒ 미래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획

- 신도시 계획 당시부터 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으며, 행정서비스, 상업시설, 먹거리, 문화 및 스포츠레저, 병원 등 신도시 내에서 해결될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함.
⇒ 고양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

- 신도시 개발에 따른 행정구역별로 기업에서 징수된 세금에 대한 이익 배분의 차이로 반발이 심하게 일어났었으나 행정구역 대표간의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.
⇒ 고양시 재개발 사업도 주민간의 의견이 일치되어야 사업추진이 원활하리라 판단.

11월10일(토)

- 노면전차 트램



친환경 교통수단(도시교통 패러다임을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)

- 트램: 일반적인 도로 위에 깔린 레일 위를 주행하는 노면전차
- 수원시는 2022년까지 트램 도입(1km당 건설비용이 지하철의 6분의 1 수준)

11월11일(일)

- 보봉마을 현장 견학



“한번쯤 살아보고 싶은 곳, 독일 프라이부르크 보봉마을”

- 친환경 에너지 사용으로 탄소 제로/ 에너지 자급자족/ 5,000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'생태적 마을 만들기'에 참여
- 오로지 '공급'만을 위한 건축이 아닌, 사람들이 원하는 요소를 갖추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있는 보봉마을

○ 시사점 또는 접목방안

- 세계적으로 유명한 생태마을답게 자동차 보급율이 20% 정도임에도 생활만족도가 90%가 넘는 곳임에 놀라움.
- 자가 전기를 생산하며 생활의 불편함을 스스로 인내하고 공유함.
 - ⇒ 황사,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와 유사한 생태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수이며, 행정적·재정적 지원과 관리가 있어야 함.
 - ⇒ 카 셰어를 통해 주민끼리 이동할 때 차를 공유



11월12일(월)

- 헤센주 체육연맹 방문



- 독일체육의 최상위 시스템은 독일올림픽위원회(DOSB)가 중심이며, 최하위 개념인 클럽이 91,000여 개가 있음.
- 헤센주체육연맹은 청소년, 성인, 전문체육인 등 3개로 구분하며, 7천~8천여 개의 동호회가 있고, 58개의 분야별 연맹이 구성되어 있음.
- 체육회의 주된 역할은 체육동호회의 후원 및 지원, 지도자 양성, 체육발전을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, 라이선스(등급 1~4) 구분, 체육건물 상담 및 지원, 체육 보험 등이 있음.
- 1년에 약 1,000여 개의 프로그램을 제공.
- 체육연맹센터에는 체육학교 건물 2개소가 있는데 비수기에는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고 있음.

접목방안

- 우리나라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하는 과정에 있으며, 그 과정에서 엘리트 체육이 힘을 잃고 있음.
- 우리도 생활체육의 저변을 넓히고 생활체육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체계적인 활성화 정책이 필요함.
- ⇒ 체육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여 생활체육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체육활성화 시스템 개발을 해야 함.
- 어렸을 때부터 체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몸에 배도록 하여 생활체육이 엘리트체육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.
- ⇒ 생활체육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공익목적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함.
- 체육시설을 지을 때도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환경을 보존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.

11월12일(월)

- 헤센주 체육연맹 방문



- * 7인 이상 동호회 등록 가능 - 시설사용 등 지원이 이루어진다.
- * 직장인도 5일간의 체육관련 특별휴가 가능(라이선스 취득을 위해...)
- * 체육인들을 위한 직업 프로그램일 운영되고 있다.

11월13일(화)

- 헤센주 주의회 방문



○ 브리핑 요약

- 비스바덴은 헤센주의 주도(州都)이며, 주의 전체인구는 약 620만명임.
- 의회건물은 170년 전 공작이 사용하던 공간(성)이었음.
- 주의회의 의석은 110석으로 사회민주당 37명, 녹색당 13명, 자유민주당 6명, 기독교민주당 47명, 좌파당 6명, 무소속 1명임.
- 지난 10월28일에 치른 선거에서 27명이 직접선출로 추가됨에 따라 137명으로 110석 자리로는 의석이 부족하여 본회의장을 공사해야 함.
- 의회임기는 5년이며, 선거는 일요일에 함.
- 외교, 군사, 연방에 관한 사항 이외의 결정은 주의회에서 결정함.

○ 시사점 또는 접목방안

- 의원을 보좌할 직원의 필요성

⇒ 비스바덴의회의 경우 정당별로 20명의 직원을 배정하고, 이번 선거에서 27명의 의원이 추가되었음에도 각 의원에게 보좌관이 배정됨.

- 의정활동의 범위확대와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최소한 의원을 보좌할 직원이 있어야 함.



감사합니다.

